

동산 오진곤 교수를 추모한다

송상용^{†1}

작년 말 동산(東山) 오진곤 선생의 부음을 듣고 놀랐다. 정년 후 한때 건강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 장수할 줄 알았다. 팔순을 겨우 넘긴 것은 참 아쉽다.

1935년 교육자 집안에 태어난 동산은 전주 사범 학교와 전북대학교 화학과를 나와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다.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6년 모교의 전임 강사가 된 다음에는 방향을 바꾸어 대학원 사학과에 들어가 석사 과정을 수료했고 1989년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 “영국 Birmingham의 Lunar Society의 형성: 산업 혁명 초기의 과학 기술과 관련하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선배 전상운 선생이 지도 교수였다.

동산은 남들처럼 과학자로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군대 막사 벽에서 우연히 읽은 글에 자극을 받아 역사로 방향을 바꾸는 모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1960 년대에 다른 몇 사람들과 함께 과학사라는 새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 선구자들 가운데 가장 운이 좋았다. 바로 순탄하게 전북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동산은 1962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과학사 교재 『자연 과학사 개론』(보광사, 1962)을 썼다. 부지런한 그는 거의 해마다 수정 증보해 새 책을 만들어냈다. 그의 과학사는 우리나라에서 선배 박익수 선생과 함께 과학의 발전을 사회적 맥락에서 서술한 외적 접근의 효시였다. 그의 끈질긴 작업은 회갑 무렵인 1996년에 펴낸 560

†1 한림대학교 명예 교수.

쪽의 『과학사 총설』(전파 과학사, 1996)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동산은 또한 『에너지와 사회』(과학과 인간사, 1979)에서 시작해 과학 사회학, 과학 정책학 분야의 책도 여러 권 썼다. ‘과학과 사회’ 교재도 누구보다도 먼저 썼고, 이 책은 널리 강의에 채택되었다. 자이먼(J. Ziman), 벤-다비드(J. Ben-David)의 과학 사회학을 처음 한국에 소개한 것도 동산의 업적이다. 그의 관심은 1970년대 이후의 과학 지식 사회화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은 동산의 보수적 기질에 맞지 않는다. 동산은 한국에서 과학사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학(STS)의 개척자로 평가받아야 한다. 동산은 일제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 학자로서 교토 대학 객원 연구원도 지냈지만 일본의 과학사, 과학 기술학 분야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데 큰 업적을 냈다.

동산은 과학과 과학사의 대중화에도 공이 크다. 그는 유려한 글 솜씨를 발휘해 많은 계몽적인 글을 썼다. 과학 저술인으로 오래 날리더니 전라북도 문화상을 비롯해 대통령상(대한민국 과학 기술상 진흥상)까지 타 보상을 받았다.

동산은 1995년 전북대 학부에 과학학과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 과학학과는 한국 최초였고 가장 충실한 학과였다는 점에서 같은 또래의 동료들보다 역세게 운이 좋았다. 물론 이것도 저절로 굴러 들어온 행운은 아니고 오래 쌓은 노력과 덕의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나도 힘을 보탤다. 나는 1977년 성균관대에 과학사 교수로 취직하면서 ‘과학사학과 설립안’을 만들어 주요 대학 총장들을 찾아 다녔으나 진전이 없었다. 90년대 들어서는 역대 교육부 장관들을 찾아가 졸랐다. 1984년 서울대 대학원에 과학사 및 과학 철학 협동 과정을 만든 김영식 교수는 김명자 교수를 연구 책임자로 한 과학사 학과 설립 연구 프로젝트를 따기도 했다. 1994년 나는 김명자 교수와 함께 동갑 친구 김숙희 교육부 장관을 찾아가 부탁했다. 마침내 교육부가 과학학과 설립을 권장하는 공고를 냈다. 나에게 이 소식을 들은 동산은 서둘러 신청했고 이듬해 전북대 과학학과가 탄생한 것이다.

나는 1969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한국 과학사 학회를 재건하면서 전주로 동산을 찾아가 입회 원서를 받고 친구가 되었다. 인품이 좋은 동산과는 45년 동안 같은 학문의 길을 가면서 많은 즐거운 추억이 쌓였다. 우아한 부인까지 어울려 남부 시장 콩나물 국밥집을 찾던 때가 그립다.